



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Fax. 714.774.9192
E-Mail: admin@gpusa.org yoonsnews@protonmail.com Homepage: www.gpusa.org

정비소에 차를 맡겨놓고 가까운 카페로 향했습니다. 빗길을 걸으며 이 비가 봄비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 겨울은 언제부턴가 낭만 없는 생존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작은 내 삶에 의미있는 일을 위한 생존의 분투라면 그 자체로 낭만이라는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겨울을 생존키 위한 분투도 분에 넘치게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여름엔 본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막내 대학입학이라는 중대사를 치뤘고, 택함 주영 하람 각각 기숙사, 아파트, 그리고 하숙 방에 입주했고, 심사숙고 끝에 하람이 자동차 다운페이까지... 저희에겐 제법 힘에 겨운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대상포진을 겪었던 아내의 경험이 무서워 두 달 간격으로 맞아야하는 예방주사도 맞았고, 캘리 운전면허 갱신(오랜만에 필기 시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키국에서 영주권(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장기 비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를 미 정부에 신청하고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 기다렸는데 그건 아쉽게도 출국전에 받아보지 못해 그냥 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인사차 한국(대구)에 잠깐 들렀습니다. 이 기간에 딱히 계획에 없던 내시경 검사를 선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용종 3개를 떼어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는 크기가 무척 컸다며 검사하길 잘했다 하셨습니다. 아내는 쓸개에 3.5센치 정도 크기의 돌이 발견되어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할 듯합니다. 아내나 저나 특별히 건강을 신경써야할 그런 나이가 됐음을 수치로 확인했고,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야할 여정을 위해 새롭게 몸과 마음을 정비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연락 없으면 이젠 죽은 줄 알라”시는 부모님의 말씀이 서운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81세의 노구로 지난해 성경읽기표 모아놓은 것을 세어보니 스물 넷쯤 되었고 올해 성경읽기표는 벌써 21개가 되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오신 성경통독은 다 헤어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신 부모님께 마음으로 부터 한없는 존경이 우러나왔습니다.

지난 5년동안 교과서를 보급했던 학년은 이번 학기엔 우리가 본국에 잠시 머문 기간에 도움을 요청해서 교장 샘에게 송금하고 교장 샘이 직접 구매하시도록 했습니다. 그 직후 왓츠앱 전화 너머로 장을라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책을 직접 전달할 땐 무상으로 받았는데 교장 샘께서 전달하면서 아이들에게 교과서 당 60솀(약 67센트) 대여비를 부담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선뜻 내지 못해 교과서를 받지 못했다 서럽게 울먹이며 하소연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가운데 공부와 먼 아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불편합니다.

이곳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학기가 9월에 시작되고 10월이 넘어가는 어느날 학교 스케줄도 모두 짜여졌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아이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는데 경험상 이번 가을방학을 마쳐야 더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운 소식은, 올 1월부터 센터에서 영어 교사로 섬겨주셨던 두 싱글 자매 사역자들이 자신의 고향 인도로 돌아갈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섬겨준 자매들

의 인생 여정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센터에도 이들의 빈 자리를 채워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전보다 사진을 보는 시간이 더 늘었습니다. 멀쩡히 잘 있다가 눈물 한 방울 흐르면 '그립구나'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애들 보고 싶어요. 눈물나려고 해요. 즉각 이런 대답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 나도 네가 그렇게 보고 싶다.'

한편, 아내를 향한 감정은 아이들이 아직 세상에 나오기 그 이전 느낌으로 돌아간 듯해 그녀가 뭘하든 사랑스럽습니다. 그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아이가 부재한 이곳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키국행 비행기에서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으로 돌아간다 생각했는데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이 안아줍니다. 마을 산책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들을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우릴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이 있어 힘을 얻습니다. 씩씩하게, 행복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차 수리 마치는 대로 난로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필요한 볼트를 못구해 더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다음 편지는 눈 덮인 어느날 따뜻한 난로 앞에서 띄우겠습니다. ^^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아나의 결혼식에서.
오아시스/보호종료아동 센터에서 함께 섬겼던 자매)

.....

삼남매 엄마 이야기 (46)

택함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서 학교 생활 한창 재미있게 하는 3학년, 5학년, 8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키르키즈로 떠났는데, 키르에서도 열심히 재미있게 지내다가 이제 막내까지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제대로 해 준 것 없는 미안한 엄마여서 아이들에게 더 고마울 뿐입니다. 미국에서 겪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 친구들과 다른 외로움이 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기쁨과 감사를 지키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이곳은 원래 지내던 곳처럼 편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방인임을 느끼게 하는 서늘한 장벽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도없이 도와주기만 하고 싶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마냥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아닌 것같은 미안함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걸으러 나가는 동네 놀이터마다, 카레이 아줌마가 돌아왔다고 반갑게 안아주는 아이들이 있어, 작은 용기가 생깁니다. 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재밌게 공부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공간으로만 남고 싶습니다.

올 해는 10월에 아직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올 겨울은 좀 덜 추울까 기대도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땅집에서 보내는 겨울은 너무 추웠던 기억만 있어서, 겨울이 겁납니다.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서 좀 덜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1. 이 땅, 이 마을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2. 좋은 성품과 실력을 겸비한 스태프를 만나도록
3. 앞으로 진행할 영주권(장기비자)를 순전히 얻도록
4. 겨울을 견딜 건강을 주시도록
5. 재웅, 현순, 하람, 주영, 택함이에게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도록